

2006년 중앙행정기관 혁신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2006. 8. 24

목 차

I. '06년 혁신목표 및 전략	1
II. 상반기 추진실적과 반성	2
1. 상반기 추진실적	
2. 혁신수준	
3. 문제점	
III.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13
1. 혁신고도화를 위한 변화관리 강화	
2.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3.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정착	
4.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구축	
5. 혁신으로 인한 정부 변화의 적극 홍보	
IV. 주요 추진일정	18

I. '06년 혁신목표 및 전략

□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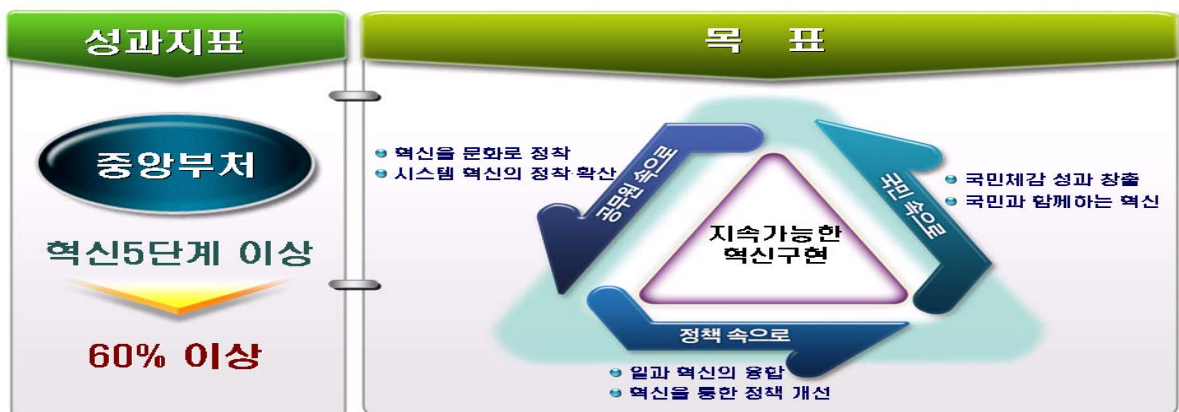
- 혁신의 가치를 공무원 속으로 내재화하여 혁신문화를 정착
- 혁신의 실행을 정책 속으로 구체화하여 정책품질을 제고
- 혁신의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

□ 성과 지표

- 혁신 5단계 이상 부처 수 60%(30개) / '05년 29%(14개)
- 고객 만족도 '05년 대비 5~15% 향상

□ 전 략

- 성과창출형 혁신
 - 인프라 구축, 시스템·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체감 서비스 혁신
- 국민참여·지속가능형 혁신
 -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혁신, 내면화·시스템화·제도화
- 자율·지원형 혁신
 - 직접관리 방식에서 자율 혁신추진체제로 전환



Ⅱ. 상반기 추진실적과 반성

1. 상반기 추진실적

❖ 공직내부의 혁신시스템·제도 등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혁신과제 추진 및 학습도 활발히 이루어짐

① 공직내부 혁신인프라 확충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범정부적 확산

- 5개 부처 시범사업 완료, 그 결과를 토대로 전 부처 구축 추진중
*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설치('06.4), 시스템 구축 로드맵 마련
- 업무관리시스템 장·차관 학습(7.14)으로 기관장의 이해도 제고

□ 성과중심의 혁신제도 도입

- 고위공무원단체 출범('06.7)을 통해 책임·경쟁의 공직문화 기반 조성
- 직무성과계약제·성과관리카드 확산 등 성과와 보상 연계 확충
- 팀제·총액인건비제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 팀제 / 21개 부처, 총액인건비제/ '07년 1월 시행 대비 8개 부처 시범 실시

□ 국정 평가인프라의 정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시행('06.4.1), 정부내 각종 평가간 중복·비효율을 제거하고 자율적 성과관리 추진기반 마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정부평가제도 기획·조정 기능 강화, 부처 자체평가 위주로 평가체계 전환
- * 정부내 31종의 평가중 19개를 '06년도 평가부터 우선 통합 실시

②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 부처별 고유 혁신과제의 추진

- 매뉴얼을 실제 부처 고유 업무에 접목, 정책성파로 연계하기 위해 50개 부처에서 184개 부처혁신과제를 선정·추진
 - BH·행자부·혁신관리위원회 공동, 혁신과제의 적절성 사전검토(1~2월)
 - * 과제의 혁신성, 국민체감도, 난이도, 파급성 등 검토
 - 혁신과제의 성과지표 사전검토 (3~4월) / 혁신과제 성과지표 분석단
 - * 타당성(목표-활동-지표간 연계), 목표의 적정성, 측정·검증가능성 등
- 혁신과제 수행정도를 중간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 (7월)
 - 우수한 점, 개선할 점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각 기관 제공
 - * 각 부처 실적자료 공개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 촉진
 - 추진상황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

□ 공통혁신과제의 심화·확산

- 기존 공통혁신과제 매뉴얼(23종)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특화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매뉴얼이 업무에 점차 적용되는 양상
 - * 총 170여종 / 정책품질관리(20), 정책홍보(28), 성과관리(21) 등
- 공통과제 관련 교육은 부처별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직장 교육 위주로 진행
 - * 공통과제교육(403회) / 직장교육(256), 워크숍(56), 소속교육기관(54), 기타(37)

※<참조1> 혁신과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 우수혁신시스템의 브랜드화

- 혁신성과를 국민과 세계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50개 전 부처에서 행정시스템 등 71개 브랜드 과제를 선정·추진
 - 기관장, 혁신지원기관, 혁신브랜드 담당자 학습 (3~4월)
 - 브랜드매뉴얼 제작·배포(6월), 부처 혁신브랜드 사전진단(5~7월) 실시
 - * 행자부에 혁신브랜드위원회 설치('06.4) / 민간 브랜드·홍보 전문가 등 10명
- 고객지향 마인드 향상, 혁신성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자부심 제고 등 유·무형의 성과창출 예상

③ 문제해결과 실천중심의 혁신학습

□ 업무와 연계한 문제해결형 학습 추진

- 혁신선도 부처 중심으로 6시그마 등 문제해결기법 학습 확산
 - * 6시그마 : 환경부 등 6개 기관 / 액션러닝 : 5개 기관 / Work-out : 3개 기관
-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무관련 현장체험 학습 운영
 - * 업무관련(372회), 우수사례·기관 벤치마킹(220회) 등

□ 실천위주의 학습동아리 운영

- 학습동아리의 양적 증가 외에도 동아리 성과물이 제도개선, 업무 매뉴얼 작성으로 이어지는 등 동아리 활동이 질적으로 변화
 - 상반기 총 2,586개 동아리 운영 중 / '05년 대비 741개 증가

- '해운물류호'(해양수산부) :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추진
- 'Gateway to IT'(조달청) : IT계약 업무처리매뉴얼 제작
- '마이다스팀'(행자부) : 좋은 일터 만들기(GWP) 사업 추진

□ 혁신내재화 단계에 맞는 변화관리 학습

- 국장·과장·담당급 계층별로 구분, 심화된 변화관리 과정 운영(중공교)
 - * 지속적 혁신동인 확보 과정 / 혁신성과창출 과정 / 혁신격차해소과정
 - * '06년 상반기 : 국장급 (7회 231명) / 과장급(3회 111명) / 담당급(9회 148명)
-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 변화관리 학습 실시
 - * 자체개발 학습 337회, 공무원교육기관 활용 38회, 민간기관 활용 96회

4]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진단·컨설팅

□ 혁신지수(GII) 고도화 및 부처별 자율진단 역량 강화

-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모형 (GII_Core) 개발, 소속·산하기관 등 수시 자율진단 지원
 - * 부처 혁신기획관 주관으로 242개 소속·산하기관 진단 실시('06.3,5월)
- GII 기본모형 고도화, 중앙·자치단체·교육청 정기진단 실시('06. 6~8)

□ 현장 중심의 맞춤형 혁신컨설팅 추진

- 미흡기관 및 신설기관(10개) 혁신컨설팅 집중 실시 ('06. 5 ~ 7)
 - 혁신관리·역량 등 혁신 인프라, 부처혁신과제 중점 컨설팅
 - * 행정자치부에 '정부혁신 컨설팅센터' (T/F) 설치·운영('06.5)
- 내부 컨설턴트 양성, 컨설팅매뉴얼 개발 등 부처의 컨설팅 역량제고
 - 컨설턴트 역할·스킬, 실습 등 혁신컨설팅 전문학습 실시('06.6)
 - * 중공교내 '혁신컨설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부처 혁신담당자 40명 대상

⑤ 정부혁신 홍보의 전략적 추진

- 성과보고서, 혁신전광판, 국정브리핑 기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혁신성과 홍보
 - * 「국민과 함께 한 정부혁신 3년」(’06.3), 「혁신과 분권의 현장」(’06.1) 발간
- 혁신지원기관 중심의 ‘정부혁신홍보협의회’ 구성·운영(’06.5~)
 - 매주 각 부처 혁신담당관의 혁신홍보 추진현황 실태 점검
 - ‘정부혁신 비판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내부보고서 발간 예정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혁신홍보 T/F 구성·운영(’06.7~)
 - 국내 진출 외국기업·외신기자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등 활용

⑥ 혁신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나라장터 세계정보기술올림픽 최우수상 수상(’06.5), 정부혁신지수 UN 공공행정상 수상(’06.6) 등 한국 정부혁신의 국제적 위상 상승
- 외국정부와의 양자협력을 통한 상호 벤치마킹 등 실질적 혁신협력 확대
 - * 독일과 MOU 체결 완료(’06.7월), 베트남과 MOU 문안 협의중
- ‘UN거버넌스센터’ 설치 협약 체결(’06.6)로 국제 혁신네트워크에의 영향력 확대 및 주도적 역할 수행 전망

2. 혁신수준

❖ '06년 7월 정부혁신지수 진단결과, 중앙행정기관의 혁신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나 일부 정체 또는 되돌이 현상도 발생

1] 혁신수준의 변화

○ 전반적으로 혁신수준이 상승 중이나 상승세는 다소 둔화

- 5단계 이상 기관 수는 '06년 목표 30개(60%) 대비 16개

※ 혁신수준(평균) : 3.92단계('05.7) → 3.98단계('05.12) → 4.0단계('06.7)



○ 또한, 일부 기관은 혁신수준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한 경우도 있음

- 총 7개의 중상위 기관(4·5단계)에서 혁신수준이 퇴보

* 5→4단계 : 2개, 5→3단계 : 1개, 4→3단계 : 4개

⇒ 혁신리더십, 자체 혁신계획 실행 및 인지도 부문 점수 하락에 기인

- 총 7개의 열위기관(2, 3단계)은 여전히 변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3단계 유지 : 5개, 2단계 유지 : 2개

⇒ 전반적인 혁신관심도 부족, 지속적인 혁신순위 열위에 따른 좌절감 등

② 부문별 혁신수준

- 혁신리더십, 구성원 역량이 작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음
- 다른 부문에 비해 혁신성과, 관리·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외부의 KT, 한전 등과 비교할 경우 우수기관(5단계)은 대등한 수준을 보이나 중앙부처 평균적으로는 미흡
 - 혁신성과 부문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③ 혁신의 내재화 정도

- 내재화수준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민간에 비해 여전히 낮음
* 내재화 수준(평균) : 46.1('05.7) → 52('06.7), 민간 LG전자 수준 72.1('05.7)
- 5단계 기관의 경우에도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내재화는 대부분 낮은 수준

- 혁신 내재화 : 혁신이 구성원에 내면화되고, 조직차원의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정도
- 측정 지표
 - ① 구성원 활동 내재화 : 기관장·간부의 직접제안·실행, 타구성원 설득비율, 직장협의회 참여여부 등
 - ② 시스템 내재화 : 업무개선 정도, 인사·보상 반영, 실패수용 제도 등

※<참조2> 혁신의 내재화 정도 분석

④ 혁신의 성과 창출 정도

- 혁신 성과의 개선 정도는 작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수준
* 성과개선도 : 36점('05. 7) → 41.8점('06. 7)
- 세부적으로는 고유혁신 성과가 가장 높으며, 내부효율성, 고객 가치, 대외적 평가의 순임

- 고유과제 성과(48) / 기관대표 성과지표 결과
- 내부 효율성 (43.7) / 인력·조직효율성, 예산대비 사업 효율성
- 고객 가치(42.9) / 고객만족도, 고객대상 신규서비스 개발 등
- 대외적 평가(31.3) / 민간·외국 혁신상, 정부내 혁신경진대회 수상 등

※<참조3> 혁신의 성과창출 정도 분석

3. 문제점

❖ 정부혁신 수준진단('06.6~7, 중앙부처 50개 기관), 현장실태조사('06.4~5, 2500명 설문조사, 120명 FGI), 성공사례 분석('06.7, 224개) 등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

① 혁신내재화로의 질적 도약에 애로

- 현재 혁신 5단계에서 고도화로 질적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재화의 벽'에 봉착
 - 5단계 기관은 기존방식의 성장에 한계, 성과 없는 혁신 노력은 구성원의 피로감만 가중
- 일부 기관은 혁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혁신정체, 퇴보, 동력상실 등을 경험



○ 질적 도약의 애로요인

개인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공에 대한 회의적 시각 / 성과에 대한 조급증 • 자아실현 등 상위욕구와 연계된 참여장치 부족 / '재미없는 혁신'
조직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의 교체에 따른 리더십 부족 • 창의적 아이디어, 도전 정신, 튀는 사람을 꺾는 조직문화
제도·시스템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도입·시스템 구축에만 치중, 공감대 형성 등 변화관리 노력 미흡 • 혁신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미흡

- 특히, 5단계 기관의 혁신 고도화를 위해서는 장애요인 제거 외에 혁신촉진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

* 혁신촉진 기제 : 직속상사의 지원,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 상사의 실패책임 부담, 성취감·자긍심 부여 등

② 혁신방법론을 활용한 업무성과 창출 미흡

- 혁신기법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본 경우는 25.4%에 불과
- 매뉴얼의 업무 활용도와 만족도(45.5%)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매뉴얼, 우수사례를 공유·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 * 공통과제 관련 교육에 매뉴얼의 활용도(48.5%) 저조
- 부처고유 과제가 산출(Output) 지표 위주로 관리되어 최종 성과(Outcome) 측면의 과제수행노력은 미흡
 - 과정의 적정성, 정책효과 달성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 미흡

③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 부족

- 일반 직원의 업무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감대 형성 미흡
 -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차별성 인식 미흡, 성과평가 왜곡 우려 등
- 시범 운영 기관에서도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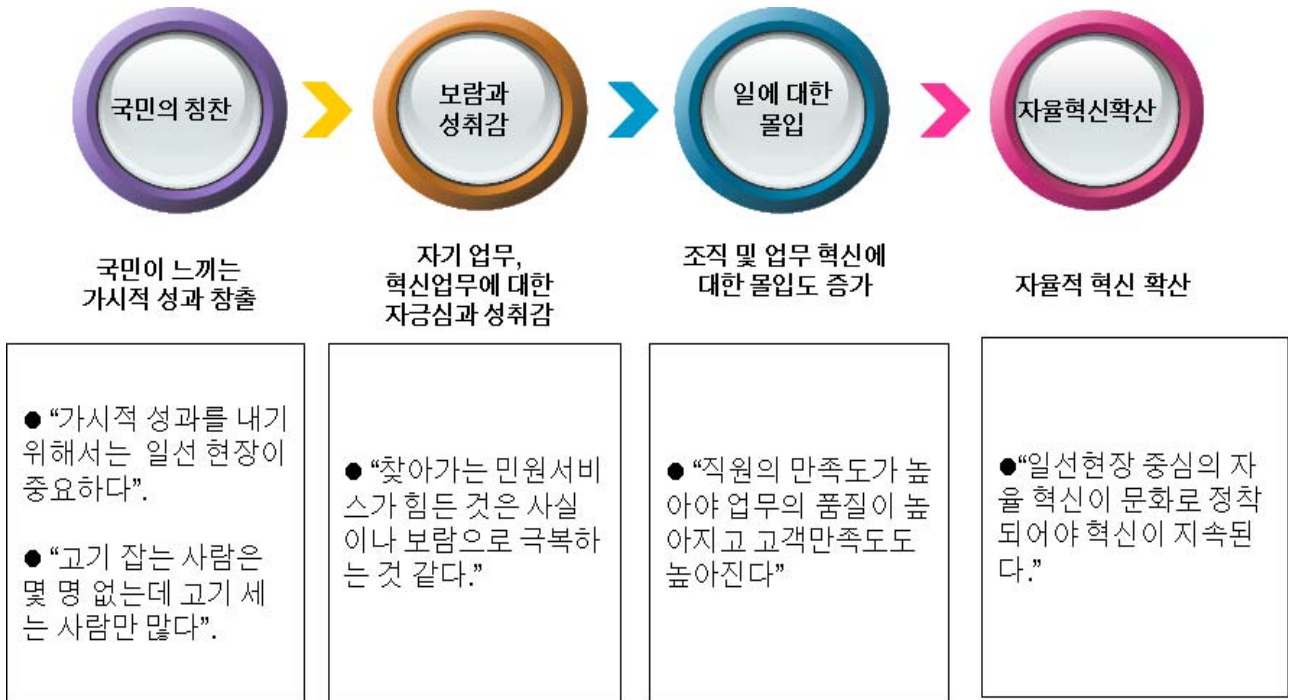
④ 지속 가능한 혁신의 확산과 자율 혁신동력 창출 경로 취약

- 정부혁신의 당위성, 지속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 법령 미비 등으로 공무원 57%만이 혁신의 지속성에 대해 확산

- 지속가능하다 : 시스템과 제도, 고객·성과중심의 조직문화
- 사라질 것이다 : 형식적 혁신, 획일적 평가, 혁신이란 명칭

* FGI 조사 결과('06.5)

- 혁신의 지속가능성 촉진요인은 현장중심의 자율혁신으로 분석
 - 일선현장의 가시적 성과로 인한 국민의 칭찬 → 보람과 성취감 → 직원만족도 상승 → 자율혁신 확산의 선순환 경로가 중요



※ 향후 혁신에의 시사점

- ▶ ‘내재화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혁신이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조직 문화로 정착되어야 함
- ▶ 혁신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 애로요인의 제거 등 전략적 변화 관리 필요
- ▶ 혁신방법론을 활용한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매뉴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가 중요한 과제
- ▶ 지속가능한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현장중심의 자율혁신 기조의 정착으로 내부 혁신동력 창출을 촉진할 필요

Ⅲ.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 ❖ 질적 혁신으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 혁신관리에 역량 집중
⇒ 자율·창의적 변화관리, 혁신성과의 창출, 업무관리시스템 정착·확산,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구축 등에 중점

1. 혁신고도화를 위한 변화관리 강화

□ 혁신우수기관의 내재화 도약 지원

- 혁신 우수기관(5단계)을 대상으로 기관별 내재화 장애요인을 집중 진단·컨설팅하여 해결방안 제시·실천 (9~10월)
 - 특히, 되돌이 현상이 우려되는 5단계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 '06년 하반기에 우수기관중 3~4개 기관을 선정, 시범실시

□ 혁신정체·부진기관에 대한 집중 컨설팅 실시

- 올해 말까지 모든 열위·부진기관을 4단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 혁신리더십·구성원 역량·혁신실행도 등 부진 요인 정밀 분석, 컨설팅
 - * '06, 7 혁신수준 진단 결과 3단계 이하 기관 14개 기관 대상
- 부처별로 개선의지를 담은 새로운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희망하는 경우 정부혁신관리위원 등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지정

□ 혁신학습·교육 강화 및 부처별 혁신전문가 양성

- 문제해결과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혁신학습 강화
 - 이수·인증제 도입, 성과 분석·피드백 등 사후관리 강화
 - 특화 매뉴얼 개발, 콘텐츠를 내실화한 직장학습 강화
 - * 매뉴얼 e-러닝 강좌 개발(9~11월), 매뉴얼 통합관리(혁신포탈)

- 정부내 혁신 DNA 확산을 위한 혁신전문가 양성 강화
 - 기관별 혁신전문가 보유 목표치 설정, 혁신업무 경험자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 혁신전문가 양성 추진
 - * 혁신컨설턴트 양성과정, 민간전문 교육, 해외 연수프로그램 등 활용
- 혁신리더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고위직 혁신교실 운영
 - 혁신수준 후퇴·정체기관의 기관장의 혁신 역량·리더십 강화
 - 신규임용 정무직·고위 공무원단의 혁신체험학습
 - * 고위 공직자 대상 혁신리더십과정 등 개발·운영 / 중공교
- 혁신교육·학습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혁신학습 모델 도출
 - 내재화 단계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07년 혁신학습 추진방향 설정
 - * 대표적인 계층·수준별 혁신교육과정의 효과성 분석 (9~11월)

□ 선택과 집중, 자율에 기반한 혁신평가 방식 개선

- '06년 하반기는 혁신문화·혁신성과 부문을 집중적으로 평가, 투입·산출보다 종합적 성과(Outcome) 중심으로 평가
 - * 혁신브랜드, 제도혁신, 혁신문화·성과 비중 제고 검토
- 혁신 고도화기에 적합한 혁신평가 방식으로 개선 추진(10월~)
 - * 우수기관의 자율평가로의 전환, 평가와 진단의 연계방안 등 검토

2.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정책과 혁신의 결합을 통한 성과창출 가속화

- 과정혁신 방법론을 부처혁신과제에 접목, 내실 있는 성과 창출
 - 매뉴얼을 통한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센티브 부여
 - * 05년 우수사례 분석결과, 정책과 융합(19.4%) 및 고객가치 창출(51.7%) 미흡
 - 상반기 점검결과 부처혁신과제 미진부처에 대해 특별컨설팅 실시
- 범정부적 정책실패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정책현장의 품질관리 강화
 - 문제정책 발굴, 실패사례 분석·공유, 정책품질심사를 부처단위로 확대
 - * 품질관리제도 등을 국제표준·기준에 맞도록 국제 공인을 추진하고, 정책품질 인증제도(GIS) 도입 검토
- 주요 공통혁신분야의 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장애요인 해소
 - 공통혁신과제 주관기관별로 점검결과 및 해소방안 보고 추진
 - * 인사·성과관리(9월), 조직·지식관리(10월), 민원제도개선·정책홍보(11월)

□ 우수혁신시스템의 혁신브랜드화 지속 추진

- 국민 체감도, 국제 인지도가 높은 10대 대표 브랜드 개발, 집중관리
 - 연말 혁신브랜드 경진대회 개최, 혁신브랜드 인증마크 제정
- 혁신 성과에 상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화 노력 강화

□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제도 혁신

- 부처별로 대표적인 국민 불편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부처 핵심 고객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성과향상
- 중앙-지자체-산하기관 연계과제(예: 출입국 관리, 문화재 관리 등)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관간 포럼 운영

3.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정착

□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행자부에 전담 조직 설치(9월중)하여 구축단계별 변화관리 추진
 - 조속한 구축·정착을 위하여 부처별 전담팀 구성·운영(9월중)
- 관련 제도개선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도모
 - 법령 정비, 인사·성과제도 개선, 인센티브 도입 등
 - * 「정부업무관리규정」 신설, 공공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등

□ 업무관리시스템 확산·정착을 위한 교육·학습

- 시스템 이해도·공감대 제고를 위한 밀도 있는 학습·교육 실시(9~12월)
 - * 워크숍, 간부·실무자 등 계층별 교육, 선도부처 견학 등
- 행자부 등 선도부처 중심으로 『업무관리시스템 혁신포럼』 구성(10월)
 - 시스템 운영·문제해결 경험 공유, 매뉴얼 창출, 고도화방안 연구

□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청와대나 국조실로 보내는 모든 보고서는 문서카드를 기반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9월~)
- 업무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전 정부적 합동 점검 실시(12월)
 - 개발단계부터 기관 참여·교육 정도 등 점검, 혁신평가에 반영

4.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구축

□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기본이념, 추진원칙, 혁신의무 등 혁신의 철학·기본방향 제시
- 시스템 혁신, 지식·정책품질관리, 제안, 행정서비스 개선, 보상, 학습 등 규정
 - ※ 입법예고(8~9월),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9월), 국회제출(9~10월)

□ 민관 공동연구를 통한 정부혁신 모델 제시

- 정부혁신의 필요성, 방법론, 추진전략 등 이론화 마무리
 - 정부혁신의 좌표를 찾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
 - * 민관합동 『정부혁신이론 T/F』에서 초안 집필중('06.10월 보고예정)
- 21세기 세계 일류 혁신국가를 위한 「국가혁신 아젠다」 발굴 (12월)
 - 인적자원개발, 미래와 성장, 혁신인프라 등 3개 주제별 전략·대안 제시

5. 혁신으로 인한 정부 변화의 적극 홍보

□ 혁신관련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점·홍보

- 청와대브리핑·국정브리핑에 공동 기획시리즈 게재 (9월중, 총6회)
- 정부혁신 정책 아젠다 코너 및 블로그 '혁신사랑' 운영 (8월 이후)

□ 국민을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 정부혁신관 개관 (9.6일 개관식 예정), 대학(원)생 혁신공모전 (10월), 혁신 브랜드 컨테스트 및 BP대회 (11월) 등 국민참여 캠페인 추진
- 혁신리더·실행가 중심 「강의단」 편성, 혁신 강의·성과보고회 추진 (11~12월)
- 혁신으로 변화된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기획 프로그램 제작(11~12월)

□ 각 기관 혁신담당관의 혁신홍보 역할 강화

- 부처·지자체·교육청 단위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홍보협의체 구성(11월)
- 혁신지원기관 중심의 '정부혁신 홍보협의회'에서 지속 점검

- ❖ 참여정부 혁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 ➡ 혁신문화화·시스템화·제도화 등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 ➡ 혁신 성숙·혁신영역 확대 등 다음 단계 혁신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IV. 주요 추진일정

		'06.9월	'06.10월	'06.11월	'06.12월
혁신 고도화를 위한 변화관리	혁신우수기관 혁신내재화 지원	혁신우수기관 컨설팅			
	혁신부진기관 혁신지원	혁신부진기관 컨설팅			
	혁신학습· 혁신교육강화	매뉴얼 e-러닝, 매뉴얼 통합관리 혁신교육의 효과성 분석			
	혁신평가 방식 개선	평가방식 개선 추진 혁신평가			
가시적 혁신성과 창출	정책과 혁신의 결합	정책품질관리 강화 정책실패 예방시스템 구축			
	혁신브랜드 선정, 집중개발	정부혁신 브랜드화 혁신브랜드 컨테스트 인증마크 제정			
업무관리 시스템 확산·정착	업무관리시스템 인프라구축	전담팀 구성 표준모델 개발 전부처 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 교육·학습	업무관리시스템 교육· 업무관리시스템 혁신포럼 구성·운영			
	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추진	청와대·총리실 보고문서 문서관리카드 활용 의무화 전정부 합동점검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 구축	'정부혁신추진에 관한법률'제정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국회제출, 심의			
	정부혁신 모델 개발	정부혁신 이론 연구 국가혁신아젠다 발굴			
혁신홍보	국민체감형 혁신홍보	정부혁신관 개관 혁신공모전 혁신사랑블로그 혁신홍보 공동기획 시리즈 방송 제작			

【참조1】

혁신과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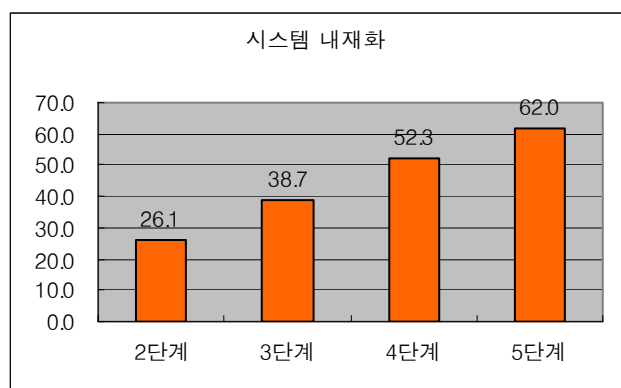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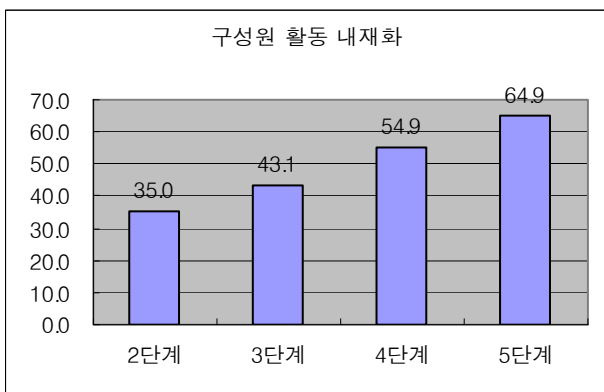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2006년
추진 방향	혁신인프라 구축	인프라와 역량강화 동시 추진	일과 혁신의 융합 국민체감형 성과창출
과제 유형	▶ 정부혁신로드맵과제 - 행정개혁분야(13) - 인사개혁분야(10) - 전자정부분야(5)	▶ 기본과제 - 행정개혁분야(9) - 인사개혁분야(3) - 전자정부분야(6)	-
	-	▶ 공동혁신과제 - 17개분야 33개과제	▶ 공동혁신과제 - 17개분야 25개과제
	-	▶ 고유혁신과제 - 48개부처 118개과제	▶ 부처혁신과제 - 50개부처 185개과제
	-	-	▶ 혁신브랜드 과제 - 50개부처 70개과제
추진 방식	▶ 부처자율 추진	▶ 부처자율 추진 - 기본과제 - 고유혁신과제	▶ 부처자율 추진 - 부처혁신과제 - 혁신브랜드 과제
	-	▶ 포럼방식 추진 - 공동혁신과제	▶ 포럼방식 추진 - 공동혁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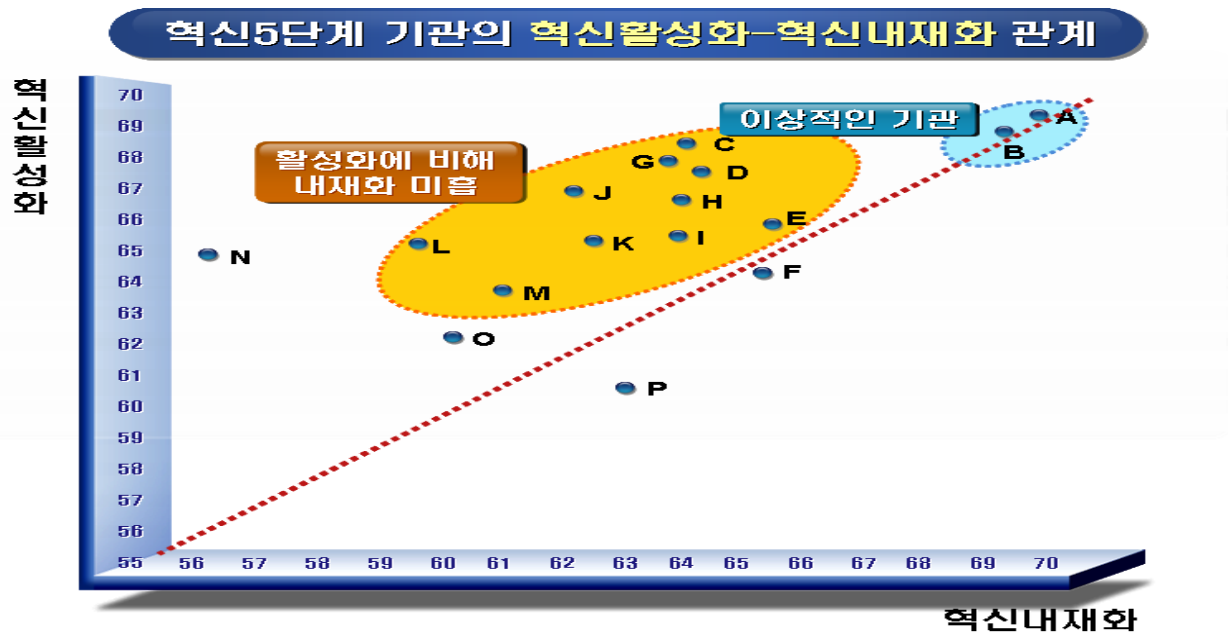
【참조2】

혁신의 내재화 정도 분석

- 내재화수준은 작년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
 * 내재화 수준 : 46.1('05.7) → 52('06.7), 민간 LG전자 수준 72.1('05.7)
- 전반적으로 4단계 기관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



- 혁신활성화 정도에 비해 혁신내재화 정도가 대부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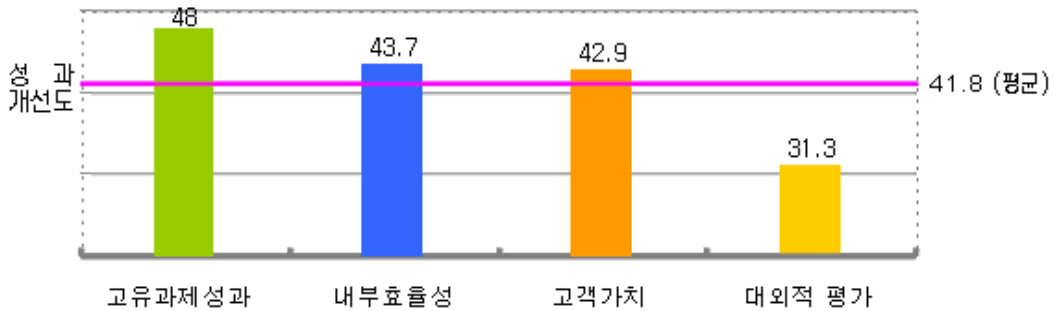
⇒ 향후 혁신의 활성화를 문화와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참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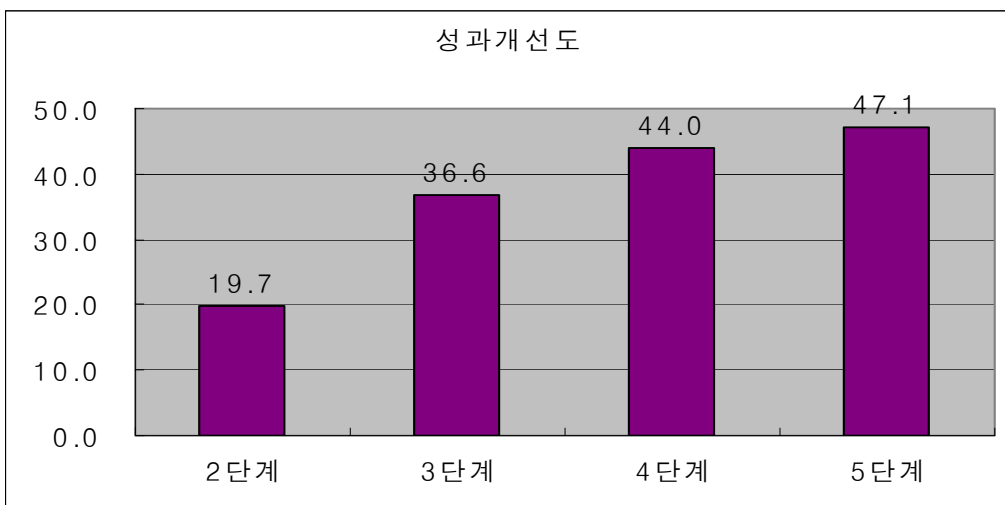
혁신의 성과창출 정도 분석

□ 성과개선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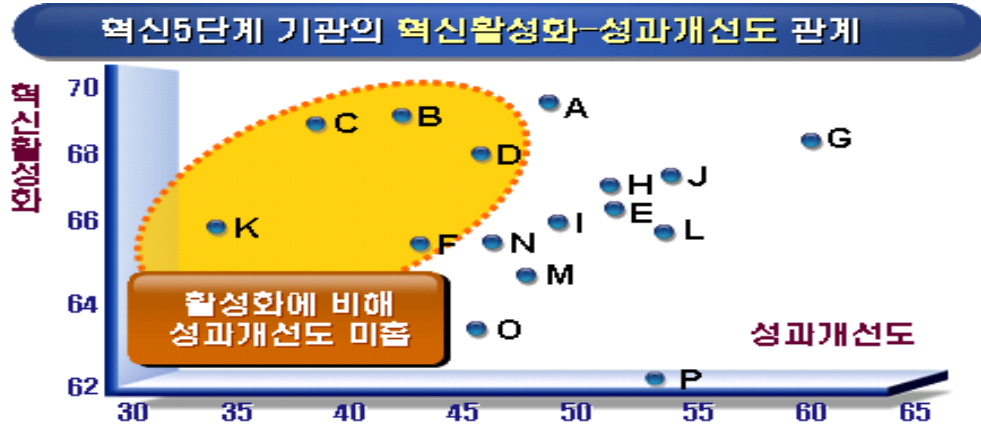
- 혁신성과 창출 정도는 성과개선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
 - 고유과제 성과, 내부효율성, 고객가치, 대외적 평가로 구성
- 세부적으로는 부처 고유혁신 성과가 가장 높으며 내부효율성, 고객가치 순이며, 대외적 평가가 가장 낮음



- 5단계와 4단계 기관의 혁신성과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5단계 기관의 경우도 혁신이 본업 및 정책과 접목되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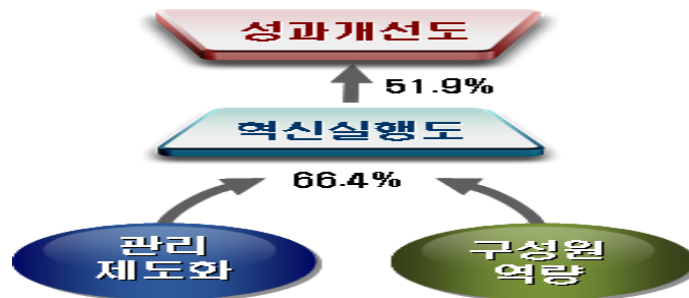
- 같은 5단계 기관내에도 성과개선도의 차이가 크며, 일부 5단계 기관은 혁신활성화에 비해 성과개선도는 낮은 수준



⇒ 체계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5단계 기관도 혁신 정체·후퇴 가능성

□ 성과개선도 분석

- 성과개선도에는 혁신실행도가, 혁신실행도에는 관리 제도화와 구성원 역량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



- 혁신내재화와 성과개선도 간에는 대체적으로 비례관계에 있으며, 내재화가 성과개선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내재화가 성과개선도의 약 38% 정도를 설명

⇒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실행도·내재화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